



젊은 감각으로 순창군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가 젊은 층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창에 젊은 관광객 유치

내일로 홍보단 발대... 강천산·고추장마을 체험 사진 SNS 통해 홍보

젊은 감각으로 순창군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가 젊은 층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8일 코레일전북본부와 함께 군청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조호권 코레일전북본부 남원관리역장, 윤대열 코레일전북본부 여행팀장 등 관계자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내일로 홍보단은 코레일과 지자체가 협력해 만 25세 미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져야할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홍보단

이다.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은 지난 7월말 70여명의 홍보단 선정을 마무리 했으며 이번 행사는 발대식을 겸한 첫 번째 캠퍼 행사다.

이날 오전 행사는 순창의 대표적 산업인 장류산업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영상회의실에서 공식발대식을 진행해 앞으로 순창관광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오후일정은 해마다 13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강천산군립공원과 고추장민속마을 캠퍼로 진행됐다.

홍보단들은 깨끗한 계곡물과 병풍폭포, 구장군폭포 등 이색적 강천산의 풍경과 고추장민속마을을 캠퍼로 진행했다.

홍보단들은 깨끗한 계곡물과 병풍폭포, 구장군폭포 등 이색적 강천산의 풍경과 고추장민속마을을 캠퍼로 진행했다.

했다.

오늘 캠퍼 행사에 참석한 홍보단원들은 강천산과 고추장민속마을을 체험 사진을 각자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또 캠퍼 동영상 제작하거나 여행후기를 써서 홍보하고 공모하면 우수작품에 대해선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군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내일로 홍보단의 활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SNS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군의 대표 관광지와 주요 행사에 대한 정보를 홍보단에게 꾸준히 제공해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양돈분야 전문가로 남원시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등 지리산 고원지역에서 흑돼지 사육과 종돈개량을 통해 양돈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지리산 흑돈 박화춘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지리산흑돈 박화춘 대표 신지식농업인에

남원시 흑돼지 사육·종돈개량 통해 양돈산업 발전·농가소득 창출

양돈분야 전문가로 남원시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등 지리산 고원지역에서 흑돼지 사육과 종돈개량을 통해 양돈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지리산 흑돈 박화춘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신지식농업인'을 수여했다.

전국 농업계 고등학생·대학생 대상 선도농업인 코칭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농업인 및 후계농 교육을 위한 정부 인증 현장실습 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농업에 전문지식을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박화춘 대표는 돼지육종으로 서 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축산연구사,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 유전자원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 남원시 운봉읍을 중심으로 인월, 아영, 산내면 등 4개읍면에서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분산된 양돈업 구조를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출하, 공동판매 등의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법인을 설립했다.

재래돼지를 기반으로 사육하였던 흑돼지를 경제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미국에서 유전자원(버크셔순종)을 도입·개량하여 국제식량기구(FAO)에 새로운 품종(다산 버크셔)으로

등재하였으며, 기존의 흑돈 농가에 분양·생산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돈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구축하였고 제품다양화를 위해 전북대학교 전북대협과 공동으로 흑돈가공육을 생산해 일반 가공육의 30%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2008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흑돈 발효생햄(지리산생햄)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등 부가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박화춘 대표는 그동안 종돈개량을 추진하면서 관련논문 6건,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7건, 표창장 3건, 학위 3건과 특허 및 상표등록 14건을 출원한 바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맞춤형 급여제도 사각지대 해소

1,430명 131명 9.2%증가

순창군이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1년여 만에 급여자수가 기존 1,299명에서 1,430명으로 131명, 9.2%증가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의 이런 실적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홍보하고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이외에도 맞춤형급여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464명에 대해서는 민간협력 및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물품지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줌

출한 복지제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단일 선정기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으로 세분화 기준을 다중화한 제도다.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순창군은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평가에서 전국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고향희망심기 사업 추진

고향방문·봉사·기부 등

남원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은 정서상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향사랑운동이다.

그간 남원시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 재외향우회(전주향우회, 재경향우회, 재인천향우회)대상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방문 컨설팅 ▲ 재외향우 및 남원출신(남원출신 공무원 모임) 대상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서한문 발송 ▲ 재외향우 고향방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출향인사 니즈(needs)와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 발굴을 위해 고향방문, 방문 후 홍보, 고향 (재능)기부·봉사 등 3개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사

업 연계 및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 정서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비롯하여, ▲ 재경인월향우회(인월면민의 날. 8. 15), 재경·재인천향우회, 남공회회 고향방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프로그램 ▲ 출향인사 자녀, 손자들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프로그램 ▲ 남원출신 수도권 대학생(서울 남원장학속 입사생)들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프로그램 ▲ 재외향우 의료봉사(재능기부), 장학금 기탁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고, 그동안 산재해 있던 소재를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범사례를 집중 육성해 운동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진안 경계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임실군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최 외곽지역으로 그동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관촌면 6개마을(회봉, 황두, 금정1, 금정2, 고덕, 구암)에 대해 총 소요사업비 15억원 중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당초 임실군 상수도시설(정수장 및 배수지)에서 상수도 관로를 시설할 경우 사업비는 25억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인근 지자체(진안군)의 상수도시설(정수장 및 배수지)을 생활권이 가까운 임실군 마을에서 공동 사용할 경우 행정구역별 초월 상수도 관로연장 단축 등으로 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철저한 상수도 유지관리로 오지산간 지역도 도심지 못지않은 맑은 물을 공급해 선진 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금년 3월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준공기한을 앞당기게 되어 주민들의 음용수 사용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수영특강 교실 '호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운영 중인 초등학교 수영특강 교실이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특강교실에는 50명이 참가해 무더위를 잊고 여러 가지 수영법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안전체가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 사망자 중 30.5%가 수영미숙으로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며 수영특강 교실은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 속에 운영되고 있다.

3학년 이다민 학생은 "처음에는 수

영하는 것에 대해 겁이 났지만 지금은 물과 친해져 재미있게 수영교실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겨울방학에 있을 수영교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수영특강교실을 통해 단순히 수영뿐만 아니라 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유사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며 나아가 타인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고창군립수영장은 평일 300명, 주말 350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운암면, 민생 현장행정 모정좌담회

임실군 운암면은 주민 숙원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정취해 면정에 반영코자 '하계 민생 현장행정 모정좌담회'를 개최해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선거마을을 시작으로 18개 마을을 순회하며 민생과 직결된 숙원사업을 비롯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여름철 작물성상에 영향을 주는 갈색무늬 매미충방제 등 선진과학영농구현을 위한 영농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혈압, 당뇨 검사를 실시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했다.

블루벨리농장을 경영하는 김모(59)씨는 "하운암은 지난 2008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운암면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돼 그동안 보이지 않게 소외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많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컸다"며, "이번 모정좌담회를 통해 민생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행정에 신뢰와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박현기 면장은 "주민들이 건의한 120건의 불편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암면은 지난해 모정좌담회에서 건의된 100건의 애로사항 중 70건을 해결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폭염대비 건강관리 홍보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노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홍보에 나섰다.

고창군보건소에서는 읍·면 무더위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교육을 통해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논밭 작업이나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해야 하며 홀로 사시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키고 증상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무더위 쉼터 등에서 시원하게 지내면서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농촌체험 여름 휴양지로

복직대는 인파와 바가지 상흔으로 고생하기 심상한 유명 피서지대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새로운 여름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농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7월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 민박 등 농촌여행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위생 관리 상태를 일제 현장점검 하였고, 각 체험휴양마을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마을 쓰레기 줍기, 페비닐 수거, 꽃길조성 등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또한, 남원시에서는 체력적 안전사고에 대비, 체력안전·화재 보험 가입 지원(자부담 20%)을 통한 안전한 체험활동을 보장하는 등 체험마을에서의 안전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휴가를 찾는 체험관광객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마을 대표 홈페이지'(www.남원체험.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